

순천시, 미래 농업 이끌 '영농형 태양광' 실증

수도작·밭작물 실증단지 조성...100kW 규모 추진 영농·발전 병행 가능성 확인...“지속가능 농업 실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순천시가 미래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득 창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미래형 농업모델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적인 보급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수도작과 밭작물을 대상으로 각각 5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해 총 100k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승주읍 농업기술센터 인근에는 수도작 실증단지를 조성해 벼 재배를 시작했으며, 서면 구관리 일원에는 밭작물 실증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열린 벼 모내기 시연회에서는 약 4m 높이의 태양광 구조물 아래에서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를 실시했다. 농기계 운행과 영농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 영농과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도작 실증단지는 차광률을 약 30% 수준으로 설계해 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확보했으며, 생산된 전력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의 자가소비 전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일반 재배지와 비교해 작물별 생육과 수확량, 발전량, 차광 영향, 농기계 작업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농업적·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맞춤형 표준모델을 마련해 농가 보급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농업의 새로운 대안이다”며 “실증을 통해 수확량과 발전량,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이 순천시 승주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장에서 이앙기로 모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서영학 여수시장 ‘시민주권형 현장행정’ 시동

충무동 고충민원 현장 찾아 주민 안전 점검

서영학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형 현장행정’을 본격화하며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현장행보에 나섰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시에 따르면 서영학 시장은 최근 생활 속 불편과 고충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충무동을 찾았다. 서 시장이 방문한 곳은 마을 안길과 인접한 개발행위허가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석축 구조물에 ‘배부름 현상(벽체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이 심화돼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현장이다. 서 시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현장 구조물의 위험도를 면밀히 살폈으며, 주민 불안완 해소하기 위한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서 시장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세심한 검토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반드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주 등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시민주권형 행정의 핵심이다”며 “책상 위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



서영학 여수시장이 관련 부서장들과 충무동 민원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고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신규사업 추진

223억 투입...10개 마을 676가구 공공하수도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은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 수질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23억원 규모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하수도시설이 미비해 생활하수 처리에 불편을 겪어온 농어촌 마을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한다. 주요 대상지는 포두면 4개 마을(신촌·내초·외초·봉암), 도덕면 4개 마을(신양·율동·신성·회룡), 대서면 장사마을, 과역면 내로마을이다. 군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오수관로 15.2km 신설, 배수 설비 676가구 설치, 하수처리장 2개소 설치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 노선과 시설용량을 확정하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최근 8개 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적기 수해 예방



마을 주민설명회 모습.

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흥민 고충군은 “이번 사업은 총 223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아 완벽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1177@gwangnam.co.kr

보성, 벌교꼬막 ‘리본 프로젝트’ 가동한다

21억 투입...참꼬막 자원회복 총력 향후 3년 간 관련 사업 집중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보성군은 참꼬막 자원회복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벌교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벌교꼬막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참꼬막은 보성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으로, 수산물 지리표시 제1호인 ‘벌교꼬막’으로 등록돼 있으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인 ‘뽕배어업’을 통해 채취되고 있다. 보성군은 전라남도 참꼬막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생산지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남획 등의 영향으로 참꼬막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연간 2만여 톤에 달했던 생산량은 2010년 8500t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최근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025년 군 자체 집계 생산량은 26t에 그쳤다. 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벌교꼬막 리본 프로젝트와 참꼬막 대량생산 기반 구축 사업, 어장개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026년 총 21억 원을 투입해 종자 생산과 자원 방류, 서식환경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4월 참꼬막 모패(각장 2.5cm) 4톤을 살포한 데 이어, 6월 말부터 7월까지 보성군 중모 배양장에서 생산한 인공종자인 치패(각장 1.5mm)와 중간패(각장 1.5cm) 총 18t을 여자만 해역 19개소, 30ha에 걸쳐 살포할 예정이다. 또한 참꼬막 자원회복 사업의 효과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업무



보성군은 6월 말부터 7월까지 보성군 중모배양장에서 생산한 인공종자인 치패와 중간패 총 18t을 여자만 해역 19개소, 30ha에 걸쳐 살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보성군청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생육 상황과 서식환경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참꼬막 자원회복 사업은 수산자원 증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벌교

꼬막 유통·가공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지역 성장 전략”이라며 “벌교꼬막의 명성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장흥 빠빠용Zip, ‘감옥당 주말마켓’ 개장

지역 활동가 팝업 마켓·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장흥군은 최근 빠빠용Zip(옛 장흥교도소) ‘감옥당 주말마켓’의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감옥당 주말마켓’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팝업(Pop-up) 마켓이다. 옛 청사동 공간을 활용해 지역 활동가들에게는 커피, 음료, 베이커리 등을 판매하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에게는 실제 교도소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선사한다. 현재 장흥 빠빠용Zip은 담장 밖 공간인 감옥당과 정원, ‘영화로운 책방’, ‘장흥교도소 아카이브 전시관’ 등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참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최근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방식과 방문객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4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마켓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지역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25일~8월 2일)에는 장흥을 찾는 관광객



장흥 빠빠용zip 감옥당 주말마켓 모습.

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국한하지 않고 평일까지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감옥당 방문이 빠빠용Zip 전체 관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흥 빠빠용Zip 관계자는 “감옥당 주말마켓이 지역 활동가들의 창업 발판이자,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열린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구례, 농어민 소득 안정화 도모 31일까지 상품권 70만원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구례군은 지난 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을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군은 지난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239명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31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신분증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 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가능하다. 구례=이민구 기자